

2022년 10월 중국 무역 동향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2. 11. 18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◎ 요약

○ (수출) 10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0.3% 감소

- 10월의 수출증가율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, 저조한 대외 수요 및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물류 공급 차질 영향 등이 반영됨
- 10월 무역수지는 851.5억 달러로 전월 대비 4억 달러 이상 증가

○ (수입) 10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0.7% 감소

- 10월의 수입증가율 역시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약세가 지속됨
- 자동차, 원유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른 건축원자재 수입은 감소

1 수출입 동향

- 10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0.3% 감소한 2,983억 7천만 달러(약 391조 원), 수입액은 0.7% 감소한 2,132억 2천만 달러(약 279조 원), 무역수지는 851억 5천만 달러(약 112조 원) 흑자를 기록
- 10월 수출증가율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으며, 10월 수입증가율 역시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. 1~10월 누계 무역수지는 7,277억 달러(약 954조 원) 흑자로 전년 동기대비 43.8% 증가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21	'22.상반기	'22.8월	'22.9월	'22.10월 (당월)	'22.1~10월 (누계)
수 출	33,630 (29.8)	17,283 (13.9)	3,149 (7.1)	3,227 (5.7)	2,983.7 (△0.3)	29,922.5 (11.1)
수 입	26,871 (30.1)	13,487 (5.8)	2,355 (0.3)	2,380 (0.3)	2,132.2 (△0.7)	22,645.5 (3.5)
수 지	6,759	3,796	794	847	851.5	7,277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10월 수출입총액은 5,115억 9천만 달러(약 670조 원)로 전년 동월대비 0.4% 감소했으며,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 수출입총액·수출액·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7.7%, 11.1%, 3.5% 증가세를 보임
 - (수출) 10월 수출증가율($\Delta 0.3\%$)은 시장예상치(4.3%)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던 5~7월, 한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이어오던 8~9월 대비 급격히 감소
 - 10월 중국 수출 감소는 저조한 대외 수요 및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수출입 물류 공급 차질 영향을 반영하며 10월 당월 수출총액은 3,000억 미만 수준으로 급감
 - 미국, 유럽의 통화긴축 정책 영향으로 상품 소비가 위축되어 신규주문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중국의 수출 증가율 감소에 영향
 - (수입) 원자재 등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 단가가 하락하여 금액측면의 수입 성장 기여도는 약화되었으나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여파로 비료, 석탄, 원유, 천연가스, 희토류 품목의 1~10월 수입증가율은 30% 이상 기록
 - 10월 수입은 여전히 약세를 보였고, 건축원자재 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가 중국 수입증가율 하락의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됨
-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및 중국의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 여파로 향후 몇 달간 수출입감소세가 이어질 수 있으며 4분기 경기 반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
 -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인 수출의 감소는 향후 고용, 투자 방면에 연쇄적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며, 일각에서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중국 수출증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음
 - 동절기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유, 천연가스 등 품목의 수입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더딘 내수 회복세로 전반적인 수입 추이는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관	주요내용
중국	 ICBC 工银瑞信 ICBC Credit Suisse (工银瑞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월 중국 수출증가율 하락은 네 가지 주요 요인에서 기인함 (1) 해외 수요 약세 (2) 에너지집약산업 제품의 수출금액 기여도 하락 (3) 수출 보조금 정책 효과 약화 (4) 10월부터 중국 코로나 확산 확대 - 미국, 유럽의 통화긴축 정책 영향으로 상품 소비 수요가 감소하였고, 글로벌 제조기업의 재고 증가로 신규주문이 줄어들어 중국 수출 압박은 한 층 더 가중됨 - 코로나 방역으로 일부 지역의 물류는 원활하지 않았으며, 공급망에도 단계적 차질 발생
	 中信証券 CITIC SECURITIES 증신증권 (中信証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월 초 중국 8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동기대비 9.4% 감소하여 대외무역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중국 수출증가율도 감소할 조짐을 보였음 - 10월 항만 대외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동월대비 4.5% 감소하였으며 8개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 증감률 추이는 중국 대외수출 추세 예측의 주요 지표로 활용됨 - 품목별로는 자동차, 정유제품, 희토류, 선박 수출증가율이 여전히 높았으며, 수입은 자동차, 원유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그 외 품목추이는 지난 몇 달간 대체로 일관됨 - 향후 6개월~1년 동안 수출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RCEP 협정 지속 발효, 중국산 상품의 수출경쟁력 상승 등의 요인은 수출 감소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중국 수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
	 차이신 연구원 (财信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시장의 장기간 침체는 수입증가율 하락의 주요인 중 하나이며 수입품목 중 건축원자재(철강, 구리, 원목, 톱질 등)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- 가격 관점에서 보면, 13개 품목의 수입가격 증가율이 전월 대비 하락하였고 수입증가율에 대한 금액기여도는 더욱 약화됨 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위기와 관련된 곡물, 비료 등 품목의 수입 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
해외	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월 수출증가율은 $\Delta 0.3\%$로 2020년 5월($\Delta 3.3\%$)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향후 중국 수출증가세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 - 위안화 약세와 PPI(생산자 물가지수) 하락 요인은 중국 수출기업에 유리할 수 있으나 글로벌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 상쇄될 가능성이 더 큼 -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인 수출의 위축은 향후 고용, 투자 방면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,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중국 수출증가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름 -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제로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으나 내년 3월까지의 현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
	WSJ 월스트리트 저널 (WSJ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월 중국 수출은 예상 밖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각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통화정책 영향이 중국 및 글로벌 무역의 침체 결과로 나타남 - 중국의 20차 당대회 이후 정부의 제로코로나 방역정책 지속 전망이 우세해졌으며, 중국의 수출둔화는 글로벌경제 성장의 비관적이고 우려스러운 징후이기도 함 - 한국,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선두 수출업체의 해외 매출도 하락하고 있으며, 글로벌경제가 동력을 잃으면서 주요국의 무역성장세가 크게 둔화함 - 10월 수입은 여전히 약세였고 전월대비 중국 소비자의 지출 감소가 더욱 부각됨
	 REUTERS 로이터 (Reut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월 중국 수출의 시장예상치는 4.3% 증가세였으나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예상치 못한 실적으로, 완구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품목이 광범위하게 감소하였으며, 특히 유럽의 전자제품 수요가 크게 억제됨 - 일반적으로 중국 공장이 1~2월에 설 연휴로 장기간 휴업하여 해외고객은 사전에 대량 주문을 하는데 올해는 글로벌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11월, 12월까지의 중국 수출이 비관적이고 11월 블랙프라이데이에서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던 전통적 성수기가 사라졌다고 평가 - 글로벌경기 침체 위기와 중국의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향후 몇 달간 수출감소세는 이어질 것이며, 4분기 경기 반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2. 11. 13)

3 1~10월 국가(지역) 및 품목별 동향

- (국가별 동향) ASEAN(누계 수출증감률 20.5%), 미국(6.6%) 및 EU(14%), 중남미(16.8%), 아프리카(12.3%)등 주요 국가 및 지역으로의 누계수출액이 증가
 - 동북아경제권 내 한국(14.3%), 일본(6.2%)으로의 누계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홍콩(△11.9%)은 감소하였고, 동남아시아 대표 교역국인 베트남(7.5%) 누계수출액은 증가
 - 수입의 경우, ASEAN(누계 수입증감률 5.6%), 중남미(5.6%)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누계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EU(△6.3%), 일본(△8.0%), 호주(△13.9%)로부터의 누계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
 - 중국의 對대만 누계수입은 0.2% 증가하였으나 10월만 놓고 보면 4.6% 감소, 對미국 누계수입도 0.3% 증가하였으나 10월만 놓고 보면 1.5% 감소
 - 중국의 對한국 누계수입은 1.8% 감소하였고, 10월 당월 수입도 13.9% 감소

< 10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1~10월 누계증감률	국가별	금액	1~10월 누계증감률
1	*ASEAN	489	20.5	*ASEAN	333	5.6
2	미국	470	6.6	*EU	214	△6.3
3	*EU	441	14.0	대만	194	0.2
4	홍콩	263	△11.9	*중남미	163	5.6
5	*중남미	204	16.8	한국	157	△1.8
6	일본	148	6.2	일본	147	△8.0
7	한국	142	14.3	미국	128	0.3
8	*아프리카	139	12.3	호주	107	△13.9
9	베트남	124	7.5	러시아	102	49.9
10	네덜란드	101	21.6	베트남	86	△2.5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*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수출 1위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4.6%)의 누계수출액은 1.2% 감소하였고, 2위 휴대폰(비중 3.6%), 3위 의류 및 부자재(비중 3.2%)의 누계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6.7%, 6.4% 증가

-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11.6%)는 수량이 1~10월 누계 기준으로 13.2% 감소했으나 금액은 1.3% 증가
 - * 중국의 10월 집적회로(IC반도체 칩) 생산량은 전년 동월대비 26.7% 감소한 225억 개를 기록했는데, 이는 통계 기록이 시작된 97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이며 상하이 봉쇄로 타격을 입었던 4월 생산량 259억 개보다도 적은 수치
 - * 중국 파운더리 반도체기업 SMIC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관련 수요 둔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을 우려
- 2위 원유(비중 10%)는 누계수량이 2.7% 감소했으나 금액은 글로벌 유가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46.6% 증가. 3위 철광석 및 정광(비중 3.1%)은 수량과 금액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수량은 1.7% 감소, 금액 역시 31.3% 감소
- 자동차(새시 포함) 품목은 지난달 품목별 수출/수입액 순위 10위에서 이번 달 7위로 모두 상승

< 10월 중국의 TOP10 수출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10월 누계증감률	금액	1~10월 누계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96	△1.2	4.6
2	휴대폰	7,368만 대	△10.2	154	6.7	3.6
3	의류 및 부자재	-	-	137	6.4	3.2
4	반도체 및 집적회로	208억 개	△10.8	134	6.2	3.2
5	방직실 및 직물	-	-	114	6.9	2.7
6	플라스틱제품	-	-	89	12.4	2.1
7	자동차(새시 포함)	35만 대	52.8	71	67.9	1.7
8	강재	518만 톤	△1.8	68	25.2	1.6
9	자동차부품	-	-	66	9.4	1.6
10	가전제품	25,722만 대	△11.4	65	△11.5	1.5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< 10월 중국의 TOP10 수입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10월 누계증감률	금액	1~10월 누계증감률	비중
1	반도체 및 집적회로	411억 개	△13.2	345	1.3	11.6
2	원유	4,314만 톤	△2.7	298	46.6	10.0
3	철광석 및 정광	9,498만 톤	△1.7	92	△31.3	3.1
4	천연가스	761만 톤	△10.4	55	39.6	1.8
5	식량(곡류)	759만 톤	△11.3	43	11.0	1.5
6	초기 형태의 플라스틱	259만 톤	△10.8	43	△5.2	1.4
7	자동차(새시 포함)	8만 대	△6.6	41	2.5	1.4
8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38	△10.3	1.3
9	동광석 및 정광	187만 톤	8.4	37	4.4	1.3
10	석탄 및 갈탄	2,918만 톤	△10.5	37	37.3	1.2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4 주요 경제지표

- 10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전월의 50.1보다 소폭 감소한 49.2 기록, 생산자물가지수(PPI) 전년 동월대비 1.3% 하락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2.1% 상승
 - 10월 PMI는 한 달 만에 다시 기준선(50)을 하회하였으며, 주요 원인에는 제조업 시장 수요 약세, 제조기업의 생산 활동 둔화 등이 있음
 - 10월 CPI는 2.1%로 7개월째 2%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소·과일·육류 등 식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. 10월 PPI는 △1.3%로 1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주요 산업재 중 철 금속, 화학 원료 및 섬유 가격 하락, 생산 위축 등의 영향이 반영됨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2020	2021	'22.상반기	8월	9월	10월	
경제성장률(%)	2.2	8.1	2.5	-	3.9(Q3)	-	
소매판매 증감률(%)	△3.9	12.5	△0.7	5.4	2.5	△0.5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2.9	4.9	6.1	5.8	5.9	5.8	
산업생산 증감률(%)	2.8	9.6	3.4	4.2	6.3	5.0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(%)	51.9	50.3	50.2	49.4	50.1	49.2	
소비자 물가지수 CPI (%)	2.5	0.9	1.7	2.5	2.8	2.1	
생산자 물가지수 PPI (%)	△1.8	8.1	7.8	2.3	0.9	△1.3	
실업률(기말, %)	5.2	5.1	5.7	5.1	5.5	5.5	
외국인직접투자(억 \$, %)	1,444 (4.5)	1,735 (20.2)	1,124 (21.8)	144.9 (11.1)	168.9 (9.1)	-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2,165	32,502	30,173	30,549	30,290	30,524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8974	6.4512	6.4810	6.7949	6.9621	-	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 출	1,326 (△2.7)	1,629 (22.9)	814 (6.9)	131 (△5.4)	134 (△6.5)	122 (△15.7)
	수 입	1,089 (1.5)	1,386 (27.3)	772 (19.7)	135 (15.1)	127 (11.1)	134 (11.9)
	수 지	237	243	42	△3.7	6.9	△12.5

출처 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주 : 10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임